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미국발 유럽행 항공화물 운임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중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Maersk, 내륙수로 활용해 인도-방글라데시 신규 루트 개척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유럽해사안전청, 선박 배출 모니터링드론 배치

● 글로벌 물류시장 이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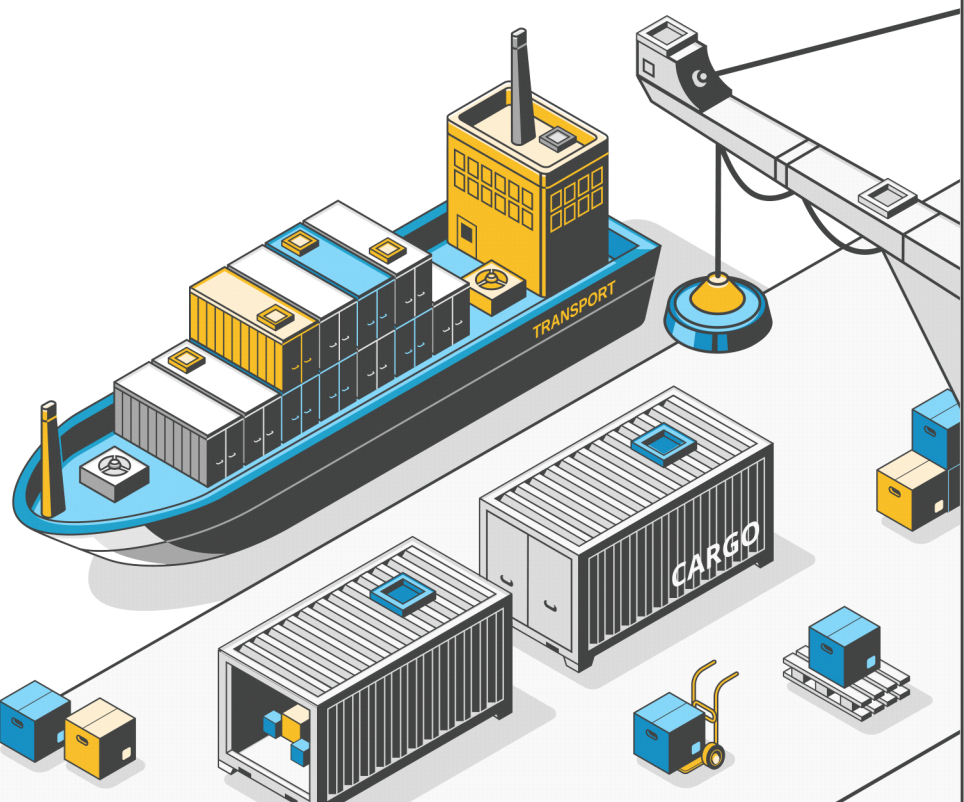
- 미국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 전략 동향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미 ILA와 USMX, 조만간 협상 개시 예정
- 미 서안 항만물류적체 점차 완화

● 공지사항

-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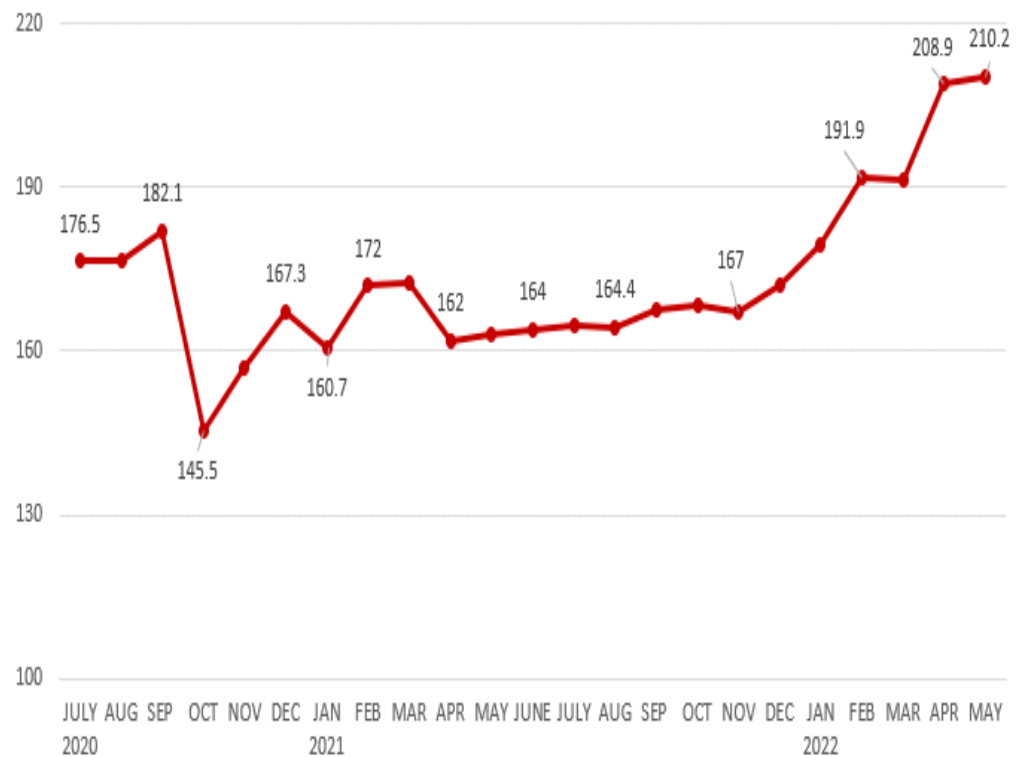


미국발 유럽행 항공화물 운임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중

● 미국 노동 통계국¹⁾에 따르면 올해 미국발 유럽행 항공화물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미국발 유럽행 항공화물 운임지수는 올해 1월 179.3(2003년 12월 100기준)에서 지난 5월 210.2로 약 17.2% 상승했으며 2020년 9월 전고점인 182.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이러한 운임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나 전쟁에 따른 유럽 지역의 항만적체현상과 국제유가 급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미국발 유럽행 항공화물 운임지수(2020년 7월-2022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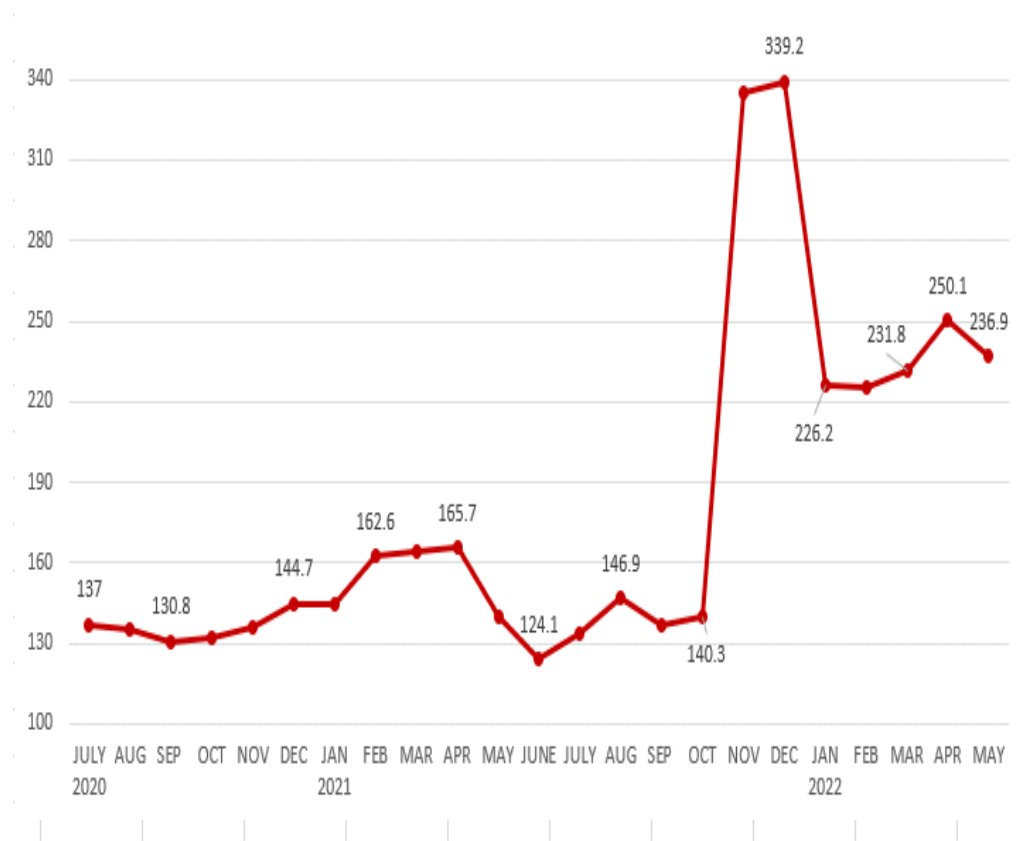
자료 : www.gscintell.com, (검색일 : 2022.7.26.)

1) 미국 노동 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 BLS)에서는 매달 미국발 항공화물 운임지수를 발표함

▶ 한편, 미국발 아시아행 항공화물 운임지수의 경우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급등한 이후 올해에는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해 10월 140.3이었던 미국발 아시아행 항공화물 운임지수는 12월 339.2를 기록하며 약 141.8% 상승함
- 그러나 지난 5월에는 236.9로 지난해 고점 대비 약 30.2% 감소해 일부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발 아시아행 항공화물 운임지수(2020년 7월-2022년 5월)



자료 : www.gscintell.com, (검색일 : 2022.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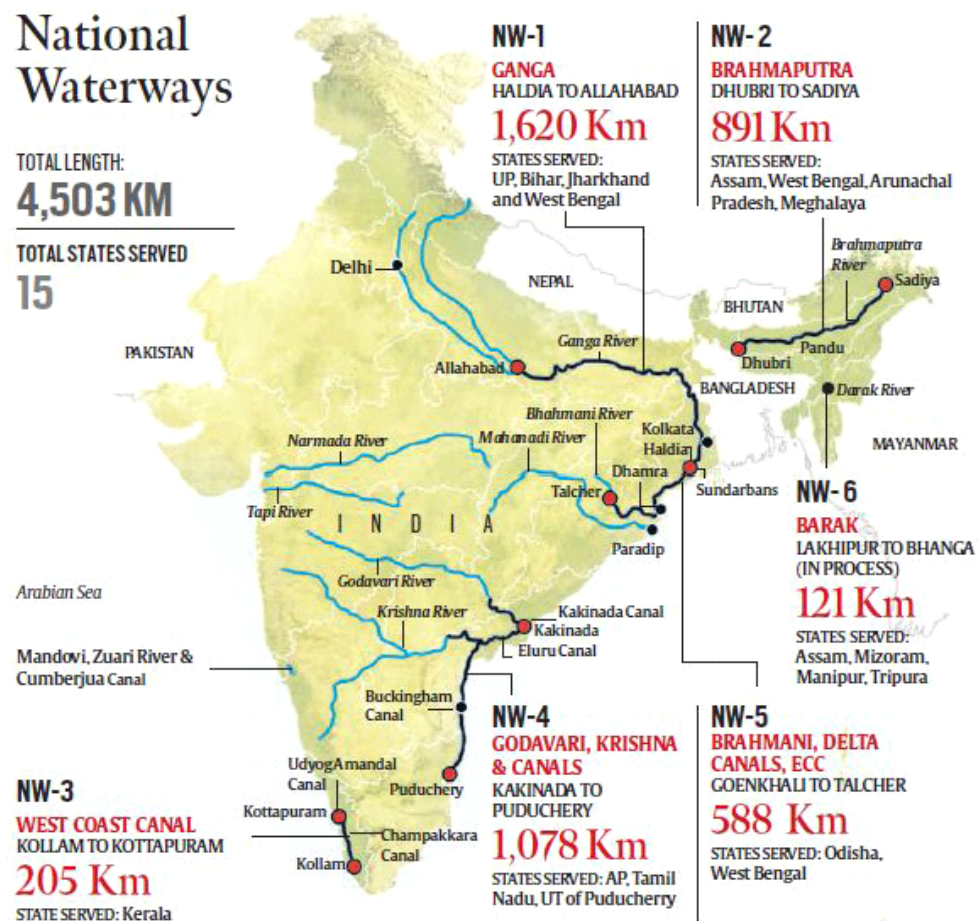
자료 : www.gscintell.com, (검색일 : 2022.7.26.)

Maersk, 내륙수로 활용해 인도-방글라데시 신규 루트 개척

● Maersk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내륙수로를 활용해 양국 간 신규 운송루트를 적극 개척하고 있음

- Maersk는 최근 내륙수로를 이용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국경운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총 물동량은 약 50TEU에 달함
- 주요 운송루트는 1,620km에 달하는 인도 National Waterway 1의 Ganga 강을 따라 콜카타항에서 방글라데시 다케CD까지 이동하는 경로로 양국 국경을 가로질러 통과함
- 현재 글로벌 '컨' 해상운임의 급등 및 선박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내륙수로를 활용한 운송시스템이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인도 내륙수로(National Waterways) 현황



자료 : www.adda247.com, (검색일 : 2022.07.26.)

- 내륙수로를 활용한 양국 간 신규 물류루트는 운송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방글라데시는 강, 하천을 이용한 내륙수로를 이용해 수출입 무역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특히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화물운송이 가능해 양국 수출입 화주기업의 선호도가 높음
 - 특히, 국경을 가로질러 가는 루트로 기존 운송시간 대비 약 60% 이상 단축 가능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뛰어남
 - 또한 육상운송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 내륙수로를 활용한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통관절차 개선 등을 통해 양국의 핵심 루트로 활성화할 계획임
- Maersk 관계자에 따르면 동 내륙수로 운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인도-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부탄, 네팔 등 물류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물류루트 개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미 ILA와 USMX, 조만간 협상 개시 예정

● ILA와 USMX 간의 협상이 곧 개시될 것으로 보임

- 국제항만노동자협회(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ILA)와 미국해운연합(United States Maritime Alliance-USMX) 간의 계약은 2024년 9월에 만료될 예정
- 2018년 9월 25일, USMX와 ILA는 동부 및 걸프 해안의 14,500명의 항만 노동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6년 협정에 서명했음
- ILA의 Harold Daggett 회장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ILA의 남대서양 및 걸프 연안 지역 회의 개막식에서 논평했음
- ILA Harold Daggett 회장에 따르면 “미 동부 및 걸프 연안의 연안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연안 고용주와의 계약 연장 가능성에 대해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러한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모든 선택권은 여전히 의제로 남아 있으며, 곧 협상에 들어가서 연장을 고려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26개월 후에 만료되는 현재의 6년 협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전함

● 그러나 양측의 협상 여부와 시기는 논쟁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JOC에 따르면 일부 원양 운송업체에서는 “해상 운임과 운송업 수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 냉각될 조짐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상부층에서 협상을 꺼리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연장이나 신규 거래 등 장기적인 협정의 경제성을 팬데믹이라는 지난 몇 년간 경험한 비교적 단기적이고 매우 수익성이 높은 경제 상황에 근거하고 싶지 않다”고 밝힘
- 그리고 운송업체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7월 1일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는 미 서부 해안 협상에서 합의된 새로운 수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협상에서 신세대 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USMX는 컨테이너 운반선, 주요 해상 터미널 운영자, 그리고 동부 및 걸프 해안에서 고용자 역할을 하는 항만 협회를 대표함
- USMX의 Dave Adam 회장은 ILA 행사에서 “양측의 어떤 대화에도 반드시 이전 세대의 연안 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이나 시간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세대 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함
- 또한, 그는 “문화적 변화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작업량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업계가 제시하는 모든 작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함

● 최근 미 동부 해안은 파업 등으로 인한 노동 혼란은 거의 없었음

- 미 동부 해안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일련의 파업을 겪었지만, 그 후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 평화에 돌입해 화주들의 신뢰를 받고 있음
- 2016년 1월 29일 뉴욕과 뉴저지 항에서 하루 동안의 와일드캣 파업과 2018년 11월 볼티모어에서의 파업을 포함해 동부 해안의 최근 노동 혼란은 거의 없었음

➤ **미 서부 해안의 ILWU와 PMA는 ‘건강급여 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함**

- 미서부해안항만노조(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ILWU)와 태평양해사협회(Pacific Maritime Association·PMA)는 5월 10일부터 미 서안 29개 항만의 22,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협상해 왔음
- 미 서부 해안의 항만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는 화요일 진행 중인 계약 협상의 일환으로 건강 혜택(healthcare benefits)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 ILWU와 PMA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급여의 유지’를 포함하는 이번 협상은 ‘협상의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며 ‘협상의 중요한 부분’을 대표한다”고 전함
- 이번 ‘건강급여 유지’에 관한 계약은 7월 1일 계약이 만료된 이후 협상의 진전을 보여주는 첫 소식임

미 서안 항만물류적체 점차 완화

- 지지난주 미 유력 일간지 CNBC에 따르면 북미에서 가장 번잡한 항만 중 하나인 LA 항에서 입항을 기다리는 선박이 연초 대비 80% 감소했음
- 올해 3월 LA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평균 210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현재는 38시간으로 줄어든 상태임
- LA 항 외항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최대 109척에서 20척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LA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난 6월 876,611TEU를 처리하며 100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전체의 효율성이 코로나19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항만 하역 후 내륙 운송 부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미국 오클랜드항의 항만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4일간 항만 기능이 멈추었음을 언급하면서 내륙항만 트럭운송업체와의 협업도 중요한 이슈임을 언급함

미 오클랜드항 항만노동자 파업으로 적체된 컨테이너



자료: CNBC, 'West Coast ports reduce idling vessels as container supply increases' (2022.7.22.) 참조

- 이와 함께 2020년과 2021년에 항만 폐쇄와 컨테이너 부족으로 급등했던 컨테이너 가격이 지난 9월부터 하락한 점도 미 서부 항만의 글로벌 공급사슬 병목 현상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미국 컨테이너 대여 기업인 Container xChange의 Christian Roeloffs 최고경영자는 지금의 컨테이너 공급 과잉 상황은 2020년 초 대유행이 발생한 직후 시작된 일련의 반동적인 시장 혼란의 결과라고 언급했음
- 아울러 미 서부 항만적체 해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공급 과잉은 새로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했음

유럽해사안전청, 선박 배출 모니터링드론 배치

- ▶ 유럽해사안전청(EMSA · EU,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이 지브롤터(Gibraltar) 해협 인근에서 드론 운영을 시작함

 - 드론을 이용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과 질소를 모니터링 함
 - 수집된 데이터는 스페인 교통부(Spanish Ministry of Transport)에 제공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배출 규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임
 - 또한, EMSA에 따르면 본 드론은 오염 감지는 물론, 인신매매 및 밀수 작전 억제, 어업 통제, 선박 교통 관리 등과 같은 보안 작업에도 배치될 것임
- ▶ 원격유인조종드론(RPAS ·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는 EMSA의 계약업체인 Nordic Unmanned가 운영하는 Camcopter S100 무인 헬리콥터로 Explicit사의 배기가스 센서가 장착되어 있음
- ▶ 배출 감시는 2025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EMSA에서 운영하는 무인 헬리콥터 RPAS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검색일: 2022.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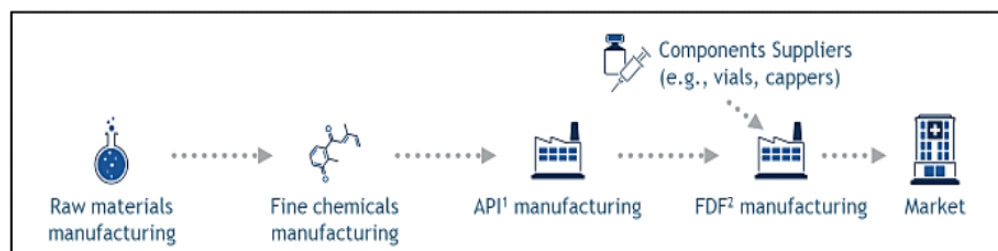
➤ 지난 4월 독일연방해양수로청(BSH·German Federal Maritime and Hydrographic Agency)과 EMSA는 대규모 드론 측정 캠페인을 실시했음

- 3개월 동안 드론을 배치해 발트해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황 함량을 측정해 적용 가능한 한계 값 위반을 식별함
- 드론은 Fehmarn Island의 동쪽 해안에 있는 Staberhuk의 Bundeswehr 기지에서 이륙해 Fehmarnbelt와 Kadetrinne/Kadetreunden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배출가스를 측정함
- 샘플이 수집된 후, 측정 결과는 발트해 배출 통제 지역의 황 함량을 보장하기 위해 EMSA가 운영하는 항만국 통제 정보 시스템인 THETIS-EU를 통해 모든 유럽 항의 책임 당국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었음
- 드론은 EMSA를 대신해 노르웨이 회사 Nordic Unmanned가 운영하고, 배출 측정을 위한 센서 기술 및 분석 기능은 덴마크 회사인 Explicit가 장착한 센서에 의해 이루어 짐

미국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 전략 동향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됨
 -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개인보호장비(PPE)와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마스크 부족현상을 경험하면서 국민 보건 문제가 국가 최대의 국정과제로 떠올랐음
- 백악관은 지난 30년간 미국 제약사의 글로벌 공급망 효율성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10년간 약 2조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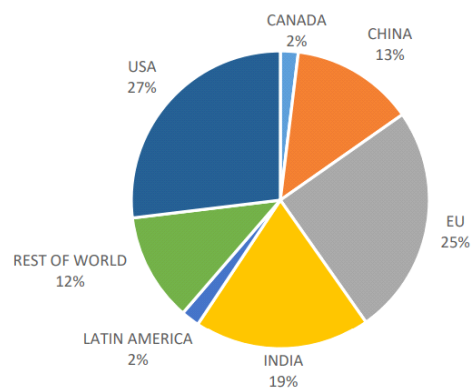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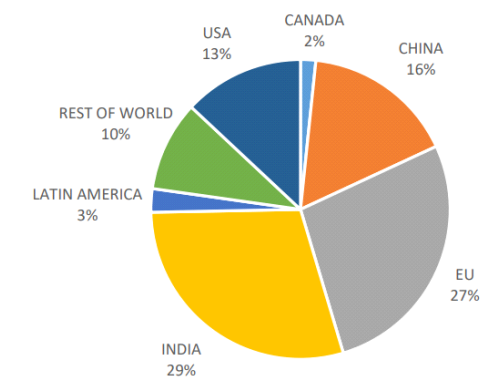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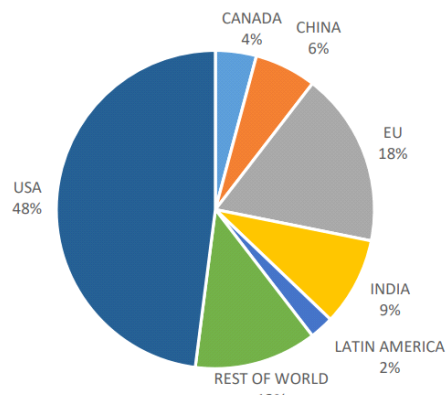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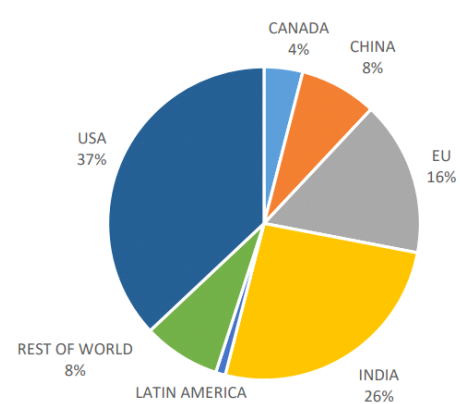
미 의약품 공급망 개념도



자료: Whitehouse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참조

- 이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성의 효과를 최대로 거두어 제약회사를 비롯한 보건 시스템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왔지만, 미국 내 제조 능력 부족, 공급망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저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증가, 공급망 혼란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져왔음
 -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제한된 정부의 역할과 시장 논리에만 의존한 자원배분, 원가 절감에 최적화를 맞춘 분업화와 특정 국가에 집중된 아웃소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음
-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R&D, 임상시험 등에 주력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 부문은 중국 및 인도에 의존하고 있음
 - 2021년 3월 기준 미국의 의약품 제조시설은 대부분 해외에 있으며 특히 제네릭(복제) 의약품은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FDA가 규제하고 있는 약물 중 73%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는 87%가 해외에 있음
 - 미국에서 판매되는 완제의약품도 FDA가 규제하고 있는 의약품 중 52%가, 제네릭 의약품은 63%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음
 - FDA가 선정한(2020년 기준) 필수 의약품 118종 중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이 미국에 남아있는 것은 60종으로 확인됐음

미 의약품 제조시설 분포 현황

미 FDA 승인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API)²⁾ 제조시설 분포 현황ANDA³⁾ 승인 제네릭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API) 제조시설 분포 현황미 FDA 승인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의약품(FDF)⁴⁾ 제조시설 분포 현황

ANDA 승인 제네릭 의약품에 사용되는 완제의약품(FDF) 제조시설 분포 현황

자료: Whitehouse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참조

➤ 미국은 첨단 의약품 R&D 부문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제네릭(복제의약품)과 관련 원료의약품(API)의 자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

- 2020년 3월 미국 내 처방되는 의약품의 90%가 제네릭 의약품임
-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의 제네릭 완제품과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은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가 낮은 국가로 이전했음

2)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의 약자로 원료의약품을 의미함
 3) 기존의 허가된 의약품 또는 승인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복제약 허가 신청을 의미함
 4) Finished Dosage Form

- 문제는 이와 같은 제품의 생산시설이 특정 국가(중국 및 인도 등)에 집중되면서 특히 침해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약품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것임
-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으로 볼 때 미국 내 소비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 40%는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인도에서 생산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 중 70%는 중국에서 수입 하고 있어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의약품 수출액 중 82%가 원료의약품이며 일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생산 기지로서 지위가 높음

중국과 인도의 화학합성 원료의약품 세계시장 점유율(2020년 기준)

(단위 : 품목 수)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기준			물량(kg) 기준		
	중국	인도	중국 및 인도	중국	인도	중국 및 인도
50% 이상	73	8	108	88	8	123
70% 이상	29	3	50	42	4	67
90% 이상	7	2	17	13	1	22

자료: 산업연구원 「원료의약품 공급망 이슈와 대응과제」 참조

- 중국은 초기 의약품 시장에 진입할 때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침투한 이후 경쟁자를 몰아낸 이후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사용해 미국 국내 의약품 생산력에 큰 타격을 입혔음
 - 미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의약품인 이부프로펜(ibuprofen)⁵⁾의 95%, 하이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⁶⁾의 91%,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⁷⁾의 70%, 페니실린(penicillin)⁸⁾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페니실린(penicillin)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미국 내에서 만들지 있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네릭 항생제도 동일한 상황임

5)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진통제이며 타이레놀과 더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로 알려져 있음
 6)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작용과 생리적 기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
 7) 해열진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관절통, 치통 및 류머티즘성 통증에도 사용됨
 8) 세균성 전염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로서 페니실리움(Penicillium)에 속하는 곰팡이에서 추출함

- 현재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낮은 이익률을 감수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약하고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미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으로 인한 예상을 초과하는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공급망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 생산능력(redundant capacity)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음
- IHS Markit에 의하면 2020년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약 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음
 - 주요 수입국은 이탈리아, 중국, 포르투갈이며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했음

최근 3년간 미국의 원료의약품 수입현황(HS Code 3003 기준)

순위	수입국	수입액(백만 USD)			점유율(%)			수입증가율 (‘19~’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	이탈리아	31	57	491	2.72	11.9	52.5	761
2	중국	61	59	84	5.33	12.3	8.98	42.3
3	포르투갈	44	63	57	3.84	13.2	6.09	-9.52
4	독일	92	62	54	8.04	12.9	5.77	-12.9
5	아일랜드	16	10	40	1.39	2.09	4.27	300
6	인도	35	27	35	3.06	5.66	3.74	39.6
7	이스라엘	27	26	31	2.36	5.45	3.31	19.2
8	한국	23	21	24	2.01	4.4	2.56	14.2
9	벨기에	11	12	21	0.96	2.5	2.24	75
10	영국	9	11	18	0.78	2.3	1.92	63.6
세계		1143	477	935	-	-	-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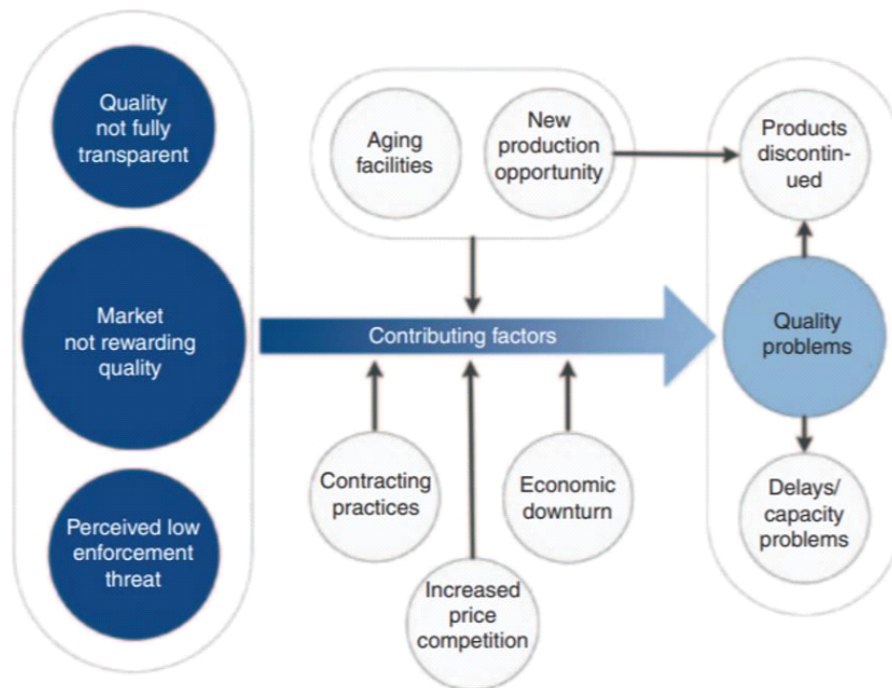
자료: KOTRA 「미국 원료의약품 시장동향」 참조

〈의약품 공급망 특징〉

- 제조 공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망은 「원재료 - 중간체 - 원료의약품 - 완제의약품 -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초화학물질인 원재료는 수산화나트륨, 염산, 포름산 등이 대표적임
- 원재료를 투입해 화합합성 단계를 거쳐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중간체라고 함
- 원료의약품(API)은 완제 의약품의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질병의 예방, 완화, 치료, 교정 및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완제의약품(FDF)은 원료의약품(API)에 안정화제(안정성 향상)와 부형제(모형 형성), 코팅제 등을 추가한 최종 제품을 의미함

- 백악관은 지난 2021년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 내 의약품 제조 품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품질의 투명성 저하(quality not fully transparent), 고품질에 대한 시장의 충분치 못한 보상(market not rewarding quality) 등을 제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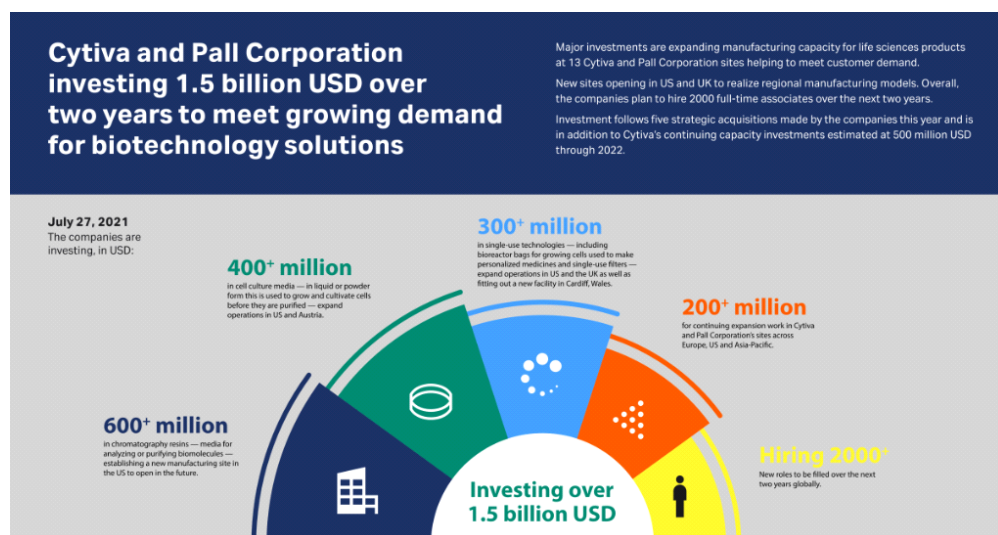
제조 품질 문제의 경제적 주요 동인(Economic Drivers of Manufacturing Quality Problems)



자료: Whitehouse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참조

- ▶ 아울러 의약품 공급망의 투명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국 및 동맹국 의약품 제조와 유통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 이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망 전반에 걸쳐 명확한 비용/편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망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비용과 편익이 분배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장 중심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음
- ▶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은 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
 -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⁹⁾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활용되는 일회용 기술 제품 생산시설을 2022년 상반기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음
 - 아반트(Avantor)사는 무균 유체 이동에 사용되는 일회용 튜빙과 연동펌프 및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마스터플렉스(Masterflex)사를 29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이번 인수로 항체, 세포·유전자치료제, 백신 및 mRNA 생산량을 증대했음
 - 싸이티바(Cytiva)와 팔(Pall Corporation)사는 2021년 바이오의약품 생산량 증대를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음

싸이티바(Cytiva)와 팔(Pall Corporation)사의 바이오 약품 관련 투자 계획



자료: 싸이티바(Cytiva) 홈페이지 참조

9)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미 정부는 국민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단기적으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저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동유럽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은 일본, 한국 및 유럽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 추진
- 특히 제네릭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가의 의존도를 줄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것임
 - 동맹국 및 우방국과 원료의약품 공급업체, 생산현황, 필수 의약품 재고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의약품 스와프 협정 등을 추진
 -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¹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임
- 아울러 미국 내 의약품 생산 확대 및 자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약품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임
 - 2020년 미 국방성과 보건복지부는 필수 원료의약품 생산과 관련해 On Demand Pharmaceuticals사에 2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음
 - 2021년에는 CONTINUUS Pharmaceuticals Inc.에 원료 및 완제의약품 연속생산 공정과 관련해 6,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음

참고자료 :

- 김경훈·도원빈(2021), 전 세계 의약품 공급망의 변화와 우리 수출의 경쟁력 분석, 한국무역협회.
- 이성경·김바우·맹지은(2022), 원료의약품 공급망 이슈와 대응과제, KIET.
- www.kpbma.or.kr, (검색일: 2022.7.12.)
- www.whitehouse.gov, (검색일: 2022.7.16.)
- ihsmarkit.com, (검색일: 2022.7.9.)
- www.cytivalifesciences.com, (검색일: 2022.7.18.)

10) 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2년 6월 23일(목) 09:00 ~ 8월 4일(목) 18:00

■ 사업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보조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

■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털(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
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2022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신청기간

2022. 6. 13.(월) 09:00 ~
2022. 9. 2.(금) 18:00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22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에 따름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2년 12월 중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 요망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주소 참조)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 300만원, 정기점검 :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전문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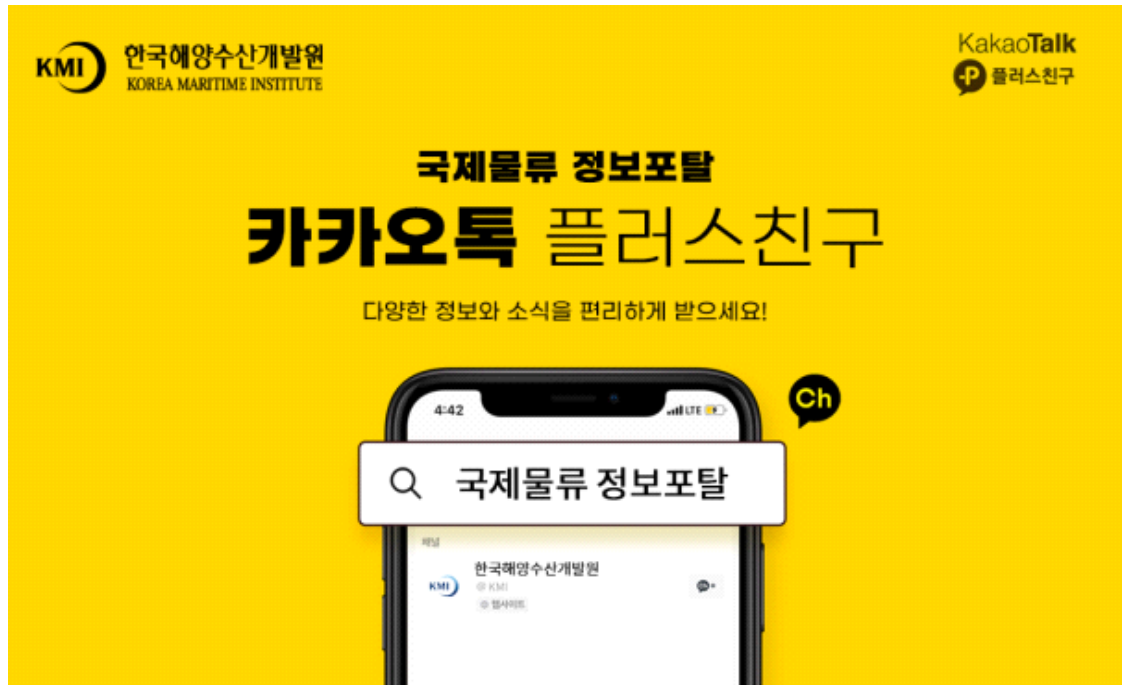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현황

2021 우수국제물류(주)	2020 (주)디엔비로지스틱스	2019 비아이디씨(주)	2018 (주)비엔피로지스틱스
2016 (주)대평	2015 동원로엑스(주)	2014 (주)C&S국제물류센터, 캄트로지스부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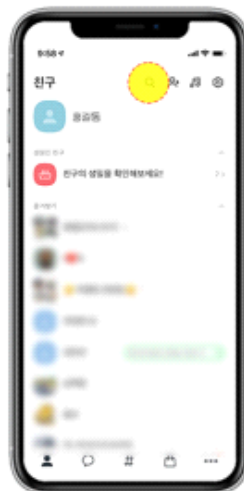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